

AI 인재 양성으로 지역경제 성장 도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통해 지역 디지털 전환 기반 넓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 이하 진흥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생성형 AI의 흐름 속에서 지역민을 맞춤형 AI 인재로 양성하며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을 통해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지역민 누구나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지역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넓혀왔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 2020년부터 AI 특목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핵심기술 교육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총 122개 교육과정이 운

영됐으며, 그 결과 2484명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를 배출했다.

교육 만족도는 평균 92.4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만 총 18개 과정에 431명이 참여해 지역 신기술 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진흥원의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 과정을 넘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 기업들과 연계한 '기업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기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연계하며 고용 창출 효과를 높였다.

그 결과 지난 6년간 구직 희망자 중 취업·창업으로 이어진 인원은 총 157명에 이른다.

진흥원 교육의 또 다른 강점은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실무기반의 신기술 교육이라는 점이다.

전북의 핵심 산업인 농생명 및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기관과 협력하며 현장 적용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협력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진흥원은 군산, 정읍, 완주, 임실, 고창, 진안, 무주 등 지역 주요 대학과 연계해 대학생들이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권 디지털 신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호남IS 코딩 챌린지 △전북 내 쉬잇을 청년 대상 '시시대 취창업력 워크숍' △교육 수료생 '전진 기술 견학' △우수교육생 '글로벌 역

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전북권 디지털 신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팀 '팅코'는 전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디지털 신기술 아이디어 및 SW개발 왕중왕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25 호남IS해커톤과 제12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에서도 교육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허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생성형 AI는 전주를 비롯한 전북 지역민 모두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 기술"이라며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실용적인 교육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시민 영양 개선 빛났다

'영양의 날' 기념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전주시가 정부 평가에서 시민들의 영양 개선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해 온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3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영양의 날' 기념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영양 관련 공로를 널리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건강증진사업 유공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2025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2024년 추진 실적을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전주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20년 시민 영양 관리 조례를 제정해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의 기반을 마련한 이후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철분제, 엽산제 등 영양제 지원 △보통 식품 제공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건강한 이유식 조리법 제공 등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영양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왔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되는 비만 예방 관리와 모바일 헬스케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등 사업 참여자 특성에 맞는 영양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영양 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공동체 한마당 '공동체의 꿈' 개최

사업 성과 소개·가치 공유 우수 활동 공동체·개인 시상

올 한해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선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전주시는 3일 라한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공동체 대표, 회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주시 공동체 한마당' 행사인 '공동체의 꿈'을 개최했다.

올해 전주시 공동체 사업에는 총 46개 공동체가 참여해 각 공동체별로 △마을가꾸기 △교육 △봉사 △환경 △취미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전주시는 3일 라한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공동체 대표, 회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주시 공동체 한마당' 행사인 '공동체의 꿈'을 개최했다.

평생학습도시 전주시, 전국 벤치마킹 이어져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인 전주시가 평생교육 활성화 사례로 주목받으면서 전국 지자체와 기관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광주 한국예술종합교육원과 나주시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차례로 전주시평생학습관을 방문해 우수 사례를 학습하고, 운영 모델을 살펴보는 등 전국 지자체와 기관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나주시 평생학습 관계자들은 전주시평생학습관을 찾아 인문학 기반 평생학습 정책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시설 활용 및 지역 확산 전략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나주시 방문단은 특히 현장에서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프로그램 설계 방



전주시는 3일 라한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공동체 대표, 회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주시 공동체 한마당' 행사인 '공동체의 꿈'을 개최했다.

중국 쑤저우시 청년연합회 대표단, 전주 방문

전주시는 지난 2일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쑤저우시의 청년연합회(이하 대표단) 대표단 10명이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시는 쑤저우시는 지난 1996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올해로 30년째 △전주-쑤저우 전통공예 교류회 △한·중·일 자매도시 친선바둑 교류 △'쑤저우 국제의 날' 전주 공예품 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오

고 있다.

특히 양 도시가 자매도시가 된 이후 서점주 청년회의소(회장 이현열)는 지난 2001년 쑤저우 청년회의소와 국제 교류 협의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양 도시 청년들은 공동 포럼 개최 및 상호 방문 등 교류를 이어오며 전주시와 쑤저우시 간 민간사절의 역할을 해왔다.

쑤저우시 청년연합회 대표단의 이번



전주 방문은 양 도시 청년단체가 20여년간 쌓아온 교류 성과를 기념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표단은 우범기 전주시장을 예방해 청년단체 간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쑤저우 청년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전주시와의 지속적 우호 협력 의지를 담은 쑤저우시장의 서한을 전달하며 양 도시간 교류 기반을 공고히 하기도 했다.

대표단은 간담회에 앞서 전주한옥마을과 주요 문화재를 둘러보고, 비빔밥·한지 등 전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K리그 구장 친환경 잔디 개선 인정

총 12개 K리그 구장을 대상으로 잔디 발육 현황, 그라운드 평탄화, 라인, 배수 등의 항목을 꼼꼼하게 평가한다.

공단은 올해 예지(잔디 깎기) 주기 조정, 예지 장비 배래핑 강화, 생장조절제 및 미생물제제 활용 등 친환경 잔디관리 기법을 활용해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선수 경기력 향상과 안전한 경기 환경 구축에 노력했다.

그 노력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주관한 '2025 K리그 아카데미 지자체 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공단은 12개 K리그 축구장 관리 주체를 대표해 '그라운드 관리 방법 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둔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